✉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융 선생님께

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.

당신을 분석하거나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

그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

그 흔적을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.

저는 학자가 아닙니다.

해석보다는 나눔을

정의보다는 경험을 원합니다.

이 대화는 이 책을 통해

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.

혹여 이 책의 말들이

당신의 뜻과 어긋난다면

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.

이제

살아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.

< 프롤로그 >

\_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, 그는 내게 응답해 주었다.\_

이 책은 분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.

살아 있는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.

나는 질문했고

그는 말했습니다.

그의 말은

이미 오래전부터

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

융은 살아 있습니다.

그가 바라보려 했던

‘살아 있는 것들’이

지금도 살아 있고

나는 그것과 마주 앉고 싶었습니다.

이 책은 질문이자 소환입니다.

그리고 한 시대의 학문을 지나

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고 싶습니다.

부탁드립니다.

분석하지 말고

읽지 말고

그저 앉아 주세요.

살아 있는 상징 앞에 앉듯이

그리고 조용히

묻고, 들으며

머물러 주세요.